

“韓 경제, 내년에 바닥 탈출… GDP 상승률 2%대 전망”

S&P·나신평 공동 세미나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내년 한국경제가 바닥을 탈출해 2%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기업들의 사업재편과 투자 확대 등을 반영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불안한 데다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도 감소된 것을 고려했다. 하지만 내년에만 성장률(4.0%)에는 크게 못 미친다. 한국의 성장 속도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만에 뒤지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다.

◆2.3% 성장전망, '대만'은 넘사벽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나이스 신용평가와의 공동세미나에서 “내년 한국 기업들을 둘러싼 신용 여건은 녹록지 않겠지만 최악의 국면은 지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4월 전망 2.0%보다 0.3%포인트(p) 높다.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도 가장 장밋빛이다.

앞서 피치(Fitch)는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지난 6월 전망치(1.8%)보다 0.1%p 상향 조정했다. 무디스(Moodys)는 “내수 회복이 약하지만, 정부의 소비 지원 및 반도체 경기 개선, 통화정책 완화 등으로 올해 1.0%, 내년에는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박준홍 S&P 상무는 “한국 기업들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에서 'NICE신용평가-S&P글로벌신용평가 공동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S&P, 내년 GDP 0.3%p 올려 2.3% “관세 완화 등 시장 가시성 높아져”

대만 성장률 올해 7.3%, 내년 4.0% AI 급성장에 격차 갈수록 벌어져 올해 1인당 GDP 우리나라 넘어설 것

변화하는 글로벌 영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해 사업 모델을 재편하고 있다”며 “이는 관세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주요 산업의 수익성이 훼손되는 시기에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S&P가 “올해 전기차 배터리, 화학, 철강 등 7개 기업의 신용 등급 또는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긍정적인 방향의 등급 및 전망 조정은 반도체와 테크 부문 등 단 두 건에 그쳤다”면서 “이는 2020년 이후 한국 기업 신용도 측면에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한 해”라

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향후 시장 상황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졌다”며 “최근 한·미 간 합의를 통해 초기에 우려했던 관세 부담도 일부 완화됐고,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 역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S&P가 최근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고, 한국 역시 GDP 성장률이 2025년 1.1%에서 2026년 2.3%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만과의 성장률 격차는 갈수록 뚜렷해지는 추세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대만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7.3%, 4.0%로 전망해 종전보다 각각 2.2%p, 1.7%p 크게 올렸다. 대만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7.6%를 기록하며 당초 추정치(2.9%)를 크게 웃돈 영향이다. 특히 고성능 인공지능(AI) 컴퓨팅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점

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대만의 1인당 GDP는 올해 2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공동 세미나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와 신용 위험”에서 내년에는 글로벌 AI 투자 확대의 속도와 지속 가능성, 신임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취임 이후 미국 통화 정책 방향 관련 불확실성, 국내 AI 인프라 투자와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원화의 구조적 약세 요인 완화 여부 등이 경제 및 금융 시장을 움직일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높은 글로벌 교역 의존도가 향후 등급의 변동 요인”이라며 “구조 개혁을 통해,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가 한국경제 버팀목

글로벌 신평사들은 내년에도 기업간

“소비자 보호 실패 ‘경영 리스크’ 아닌 ‘생존 리스크’”

금감원장, 금융지주 CEO 간담회 “내부통제 관리에 지주 역할 소극적 리스크 통합적 관리의무 수행을”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와 대형 금융 사고에 금융지주의 역할이 소극적이다. 소비자보호 실패는 ‘경영 리스크’가 아니라 ‘생존 리스크’로 인식돼야 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간담회에는 8개 금융지주 CEO와 조용봉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이 금감원장은 지주사를 대상으로 통할 관리 책임자로서 리스크를 감지·제어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 달라



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불안전 판매와 같은 소비자 피해나 잇따른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사례에서 보듯이 그룹의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지주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자회사의 취약점을 적시에 파악하고, 그룹 전반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지주 본연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이 생산적으로 흐르게 해 실물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 달라고 했다.

이 금감원장은 “금융의 자금공급이 기

술 혁신 기업,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생산적 영역으로 보다 폭넓게 흐를 수 있도록 금융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며 “생산적 금융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혁신기업 사업성 심사·평가를 고도화 해달라”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 실패는 경영 리스크가 아닌 생존 리스크로 인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객 손실이 발생한 후 손해배상만으로 일관하는 사후야방문식 대응은 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생존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며 “금융상품의 설계단계부터 어떤 유형의 위험이 내재해 있는지, 어떤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인지를 꼼꼼히 살펴 고객의 이해 가능성과 적합성 검증에 정교한 기준

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 금감원장은 CEO의 경영 승계와 관련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CEO의 경영승계와 관련해 금융지주 산하의 모든 자회사의 중장기 경영 안정성과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사안”이라며 “내 외부 후보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경영 능력에 대해 강화된 검증 등을 통해 리더십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금감원장은 정보기술(IT) 보안 및 금융소비자 분야에 대표성 있는 사외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n

ADB, 올해 韓 성장률전망치 0.9%로 상향

소비진작·반도체 회복 등 영향 반영 내년 성장률 0.1%p 높여 1.7% 제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종전 전망 대비 각각 0.1%포인트(p)씩 상향 조정했다.

ADB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12월 아시아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면서도, 단기 회복세는 기존

전망 때인 지난 9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지난 9월 전망 대비 0.1%p 올랐다. 내년 성장률 역시 1.7%로 0.1%p 상향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과 소비쿠폰 등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소비 진작,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 주요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완화 등을 반영한 결과다.

다만 부동산 경기 약세, 글로벌 무역 둔화, 지정학적 긴장 재확산 등의 하방 위험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와 내년 모두 2.1%로, 9월 전망치에서 0.2%p 올려 잡았다. 보고서는 내년에 식료품·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되고, 유류세 보조금 축소와 원화 가치 하락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역내 전체 경제는 올해 5.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보다 0.3%p 상향될 수 있다. 인도의 견조한 내수와 역내 고소득 기술 중심 수

출국들의 실적 개선이 성장을 이끄는 구조다.

내년 성장률은 4.6%로 전망해 9월 대비 0.1%p 올렸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1.6%로 0.1%p 하향 조정됐으며 내년은 2.1%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중국(4.6%), 홍콩(3.4%), 대만(7.3%) 등 주변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물가상승률은 동아시아 평균(0.3%)보다 높다. 이는 에너지·식료품 가격 상승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실적과 신용도가 차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제열 S&P 이사는 내년 전망에 대해 “산업 간 실적 차별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화학 부문은 공급 과잉 지속과 더딘 구조조정으로 인해 하방 압력이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반도체 산업은 AI(인공지능) 주도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상당한 호실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정책 변화 또한 기업 실적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미국의 전기차 보급 둔화는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에 부정적 요인이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 증가는 관련 기업의 실적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미·중 무역 갈등은 조선 산업 등 여러 국내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무디스와 한국신용평가도 ‘2026년 신용전망’에서 “내년 한국 기업의 성적표는 경기보다 산업 구조에서 갈릴 것”이라며 석유화학과 건설, 철강, 이차전지, 금융 업종의 내년 신용 전망을 ‘젯벳’으로 예상했다. 이들 업종이 고유가·고환율(원화 가치 하락)·내수부진·글로벌 통상 환경 등의 사중고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익성은 악화하고, 자산 건전성까지 흔들리고 있어서다. 반도체·조선·방산·증권 업종은 햇살이 비칠 것으로 봤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현대로템

페루에 K2전차 등 수출 195대 총괄합의서 체결

K-방산 수출 신화의 주역인 K2 전차의 두번째 해외수출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현대로템은 지난 9일 페루 리마에서 페루 육군 및 페루 육군 조병창과 K2 전차 및 K808 차륜형장갑차 공급에 대한 총괄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추후 체결될 이행계약을 통해 페루에 K2 전차 54대 및 K808 차륜형장갑차 141대를 공급한다.

페루는 국가 안보와 국방 기술 강화를 위한 군 현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이번 사업 역시 육군 지상장비 현대화 계획의 일환이다. 이번 합의서에는 지난해 체결된 지상장비 협력 총괄협약에 이어 품목, 물량, 예산 등 사업의 핵심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으며 향후 실제 사업 착수를 위한 후속 이행계약이 조속히 체결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페루의 국가 경제와 방산 발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페루 측과 함께 조립공장을 구축하고 생산 공정 일부를 현지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화로 페루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K2 전차와 차륜형장갑차가 페루에서 원활히 전력화될 수 있도록 장비 획득과 운용 전반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군수지원 사항들을 폭넓게 지원해 장기적으로 페루가 중남미 지역의 방산 허브로 도약하는데 힘을 보탬 계획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